

불교신문사 02)745-8503
01)286-2680
서울상북구성북동
실상선원 04)1734-2680
대전본산시안산면송정리

법어 조대 정공 스님 극락사 조실

“지극히 얽기 어려운 사람의 몸 받았을 때 백척간두에서 진입보하는 마음으로 삼없이 정진해야 합니다.”

“화두와 염불삼매는 다르지 않아요. 어떤 방편을 선택하든 100% 몰입해야만 견지를 얻을 수 있어요.”

☞ 자세한 내용은 12·13면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낙도 포교... 30명에 장학금 전달

육지의 떨어져 사찰, 서점, 병원도 없는 외딴섬. 그곳에 사는 순수한 심성을 간직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불교가 다가간다. 불교신행단체 허공정회(지도법사 지명, 법주사 주지)가 낙도 포교를 위해 창건한 안면도 안면암은 최근 1억원의 기금으로 장학회를 설립, 2일 초중고생 30명에게 처음으로 낙도포교 장학금을 전달했다(사진).

안면암 장학회(회장 김명순)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초등생



15명, 중학생 10명, 고교생 15명은 이날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중생을 위해 희망하겠다”고 부처님 전에 발원하는 기복함을 보여주었다.

이에 고무된 안면암 장학회는 앞으로 장학기금을 더욱 늘려, 장학금 수혜혜택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그 동안 교계에서 낙도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주는 장학금은 그리 많지 않았고, 낙도포교를 위한 장학회가 설립된 것도 처음이어서 이번 장학금 전달식은 의미가 크다.

기독교계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장학사업을 통한 선교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제는 전국 어느 섬을 가더라도 교회 없는 곳 없고, 주민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 됐다.

하지만 불교계는 낙도포교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간혹 섬에 사찰이 있다 하더라도 꺼리는 스님들로 인해 법회 불행조차 힘들 지경이다.

‘낙도’는 현재 불교계에서 가장 취약한 포교의 사각지대다. 소외되고 외로운 곳일수록

찾아 살며 부처님 가르침을 펴야 하지 않을까. 교계에서 장학회를 설립, 낙도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시급히 늘려야 하는 것도 이 같은 의미에서다.

최근 법주사 주지

지명 스님 등 구인회 스님들이 동참, 낙도를 순례하며 포교활동을 펼칠 포교선 해양호(19톤)를 구입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낙도 포교사들이 재할용품, 생필품, 기초의약품, 불서 등을 포교선에 싣고 섬에 도착한 뒤 특별법회를 개최해 주민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낙도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는 장학금도 전달할 일이 많지 않은 것 같다.

낙도포교에 원대한 서원이 모아질 수 있도록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해 본다. 문의 041)673-2333.

김원우(취재1부 차장)

최대 규모·첫 불교정보화 현황 조사

4월 한달간 1만 2천여 사찰·신행단체 대상

종단협·불교방송·불교TV·本社 공동
KT 협찬·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 후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불교방송, 불교 텔레비전, 현대불교신문사가 주최하고 현대불교신문사가 주관하는 ‘불교 정보화 실태조사’가 1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만 2천여 사찰과 신

행 단체를 대상으로 전개된다. 전국 사찰과 신행 단체를 망라해 정보화에 대한 인식과 사무자동화 현황은 물론 인터넷, 이동통신, 위성방송에 대한 이용 현황과 IT 관련 제반 육구

IT 업체들이 불교계를 주요 시장으로 인식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뚜렷한 사업을 실시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실태조사는 관련 업계가 불교계에 진출해 불교관련 IT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촉매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태조사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1만 2천여 사찰과 단체에 대한 전화설문, 6천여 사찰 단체에 대한 우편 및 온라인 설문, 500여

주요 사찰에 대한 방문 면접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 내용은 사찰과 단체의 컴퓨터 이용 실태와 인터넷 활용도는 물론 이 메일과 무선인터넷, 위성방송의 이용현황까지 다양하다.

이번 실태조사와 관련,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정대 스님은 1일 불교계의 적극 동참을 권유하는 ‘당부의 말씀’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는 5월 중순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지면에 공개되고 곧바로 백서도 발간된다.

☞ 관련기사 2·3·5면
임연태 기자 yiml@buddhapa.com



생명나무 심어 북한산 되살린다

수경 스님, 고두심, 최열(오른쪽부터) 씨를 비롯한 300여 명이 식목일을 앞둔 3월 31일, 북한산 관동도로 공사로 범목이 진행된 중추현정에서 ‘생명의 나무 심기’ 행사를 가지며 산의 소중함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이날 ‘동지의 숲대’ 퍼포먼스, 북한산그림 그리기 등 다채로운 행사도 개최됐다. 북한산=고영배 기자

개발계획때 자연·문화환경 검토

환경부 “영향평가 협의시 불교계 요구 반영” 밝혀

환경부가 개발계획시 자연 문화 환경을 고려한 사전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국립공원 용도지구역역사문화유산보호 지구 도입 등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불교 수행환경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큰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환경부가 3일 사찰수행환경 권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성태, 이하 공동위에)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조계종의 요구를 충분히 검토 반영하겠다”며 “각종 개발에 대해 사전 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전환경성 검토 실시 및 국립공원 용도지구역역사문화유산보호 지구 도입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경남 통영시와 서울시 종로구청, 고속도로 건설기확단 등에도 이와 같은 법령제도 개선 공문을 보냈다.

공동위는 3월 18일 김명자 환경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대정부 요청서를 전달했다.

김유신 기자 shanmok@buddhapa.com

태고종 제 22대 총무원장 운산스님 16일 취임식

태고종 제 22대 총무원장 운산스님의 취임식이 16일 오전 11시 서울 신촌 봉선사 삼천불전에서 봉행된다. 이날 취임법회에서 운산 총무원장은 화합종단으로 새삼계 출범하는 태고종의 발전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경숙 기자



초파일 봉축 포스터

봉축위원회는 3월 2546년 봉축포스터(사진)를 확정, 각 사찰과 단체에 배포했다. 봉축포스터는 표어가 상단에 배치되고, 연꽃과 연잎을 넣어 ‘부처님 마음’과 ‘인류평화’를 표현했다.

김원우 기자

그린벨트 전통사찰 신축 가능

건교부, 각 시·군·구에 지시

그린벨트 내 전통사찰의 신축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교통부는 3월 23일 조계종에 보낸 공문을 통해 “기종종교시설의 증축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증축면적으로 산정하고, 동일대지 내에 별도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신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와 관련 각 시·군·구에 기존건축물에 언어어 확장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불합리한 법 적용이 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 교시

해를 밝혔다. ☞ 관련기사 3면

스님은 “종단의 입법 행정기관의 협의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사면 복권을 정식으로 건의해 오면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스님은 “해인통일석가모니 불 건립계획으로 인하여 절집안

문제가 사회문제까지 비화되어 종교들과 국민들의 심리를 꺼려 드린 데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청동대불 건립문제는 문화재 전문위원 등 전문가의 견해를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법전스님은 1일 해인사에서 이화당 한나라당 총재의 예방을 받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원우 기자

이같은 건설교통부의 화신은 조계종이 최근 그린벨트 내 전통사찰의 경우 진입로 개설과 주차장 설치가 불허돼 공익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을 정부에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 본지 361호 2면기사 참조
김원우 기자 www@buddhapa.com

대한불교 조계종 제11대 종정 도림 법전 대종사 추대식

대한불교 조계종 제11대 종정 도림 법전 대종사의 종정 추대식을 병행하오니
원로대덕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께서는 무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불기 2546(2002)년 4월 18일 (음 3월 6일) 오후 2시 ☀ 장소 : 조계사 대웅전

- 동행 위원회**
- 종 명 : 서옹, 서암, 율하
 - 고 문 : 관공, 석주, 고승, 도원, 종산, 원명, 범봉, 도천, 원담, 성수, 승산, 지중, 정천, 녹원, 보성, 지관, 천운, 덕명, 도견, 청화, 활안, 이두, 동춘, 송담
 - 봉행지도위원 : 월주, 혜정, 고산, 월운, 능가, 지유, 초우
 - 봉행지문위원 : 봉주, 우봉, 송원, 운문, 법정, 무진장, 도문, 대일, 등각, 정관, 송월, 정일, 범홍, 지혜, 정무, 압도, 정원, 고봉, 정려, 홍교, 설정, 중하, 현성, 해산, 혜성, 무산, 백운, 운범
 - 봉행 위원장 : 총무원장 정대
 - 봉행부위원장 : 중앙종회의장 지하, 호계원장 월서, 교육원장 무비, 포교원장 도영,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증범, 법규위원장 밀운,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우
 - 봉행위원 : 원택, 현고, 성일, 정각, 양산, 종지, 범여, 도현, 능허, 상운, 정호, 선각, 정락, 마근, 현해, 지명, 진하, 법장, 법성, 성덕, 법의, 성타, 세민, 원정, 성오, 현문, 법조, 평상, 다정, 종걸, 현봉, 보선, 중원, 법한, 일연, 성과, 원산, 종성, 성주, 태정, 명선, 원운, 현광, 진철, 능해, 천재, 도법, 범하, 청화, 명진, 정후, 근일, 종상, 해창, 법동, 장운, 지홍, 영배, 영담, 영조, 지현, 성관, 종림, 세영, 도후, 도산, 정남, 원담, 진각, 정관, 범보, 도각, 수암, 현각, 도공, 지운, 선광, 혜정, 정주, 지광, 탄우, 정인, 석호, 태봉, 성운, 화법, 성오, 화법, 진만, 종상, 범중, 율우, 대원, 진원, 지광, 지옥, 현운, 향적, 학담, 법안, 정우, 여연, 광조, 원광, 유광, 정적, 무이, 태공, 인목, 동욱, 원타, 몽산, 원우, 자승, 정만, 초현, 법현, 종진, 장산, 정호, 정암, 종진, 화봉, 선봉, 성운, 도견, 청우, 대성, 휴정, 원행, 적멸, 고우, 정광, 성우, 무관, 현산, 혜국, 혜인, 성법, 원각, 인각, 무여, 정찬, 지현, 현록, 우승, 의정, 지홍, 운성, 철우, 법담, 보광, 법산, 인환, 현각, 선래, 진월, 원명, 인걸, 지안, 지오, 도선, 운범, 호경, 덕운, 정안, 도진, 종분, 일철, 진기, 중수, 허운, 혜자, 원해, 종림, 원소, 원중, 지선, 수경, 도견, 법광, 정광, 종영, 성국, 상문, 종관, 진관, 명성, 태경, 묘연, 대행, 명우, 법성, 법운, 진성, 불필, 본각, 해주, 일필, 수현, 운달, 지형, 도문, 계호, 경문, 서문각, 승석구, 백창기, 명호근, 정인악, 명을식, 한재구, 김화남, 김운호, 이영기, 김진관, 장영관, 김경길, 김백호, 이연숙, 조동룡, 정호돈, 윤석관, 김한근, 이병춘, 안중화, 변영우, 김동기, 추교원, 박수관, 권세욱, 최중대, 광종형, 박희현, 국기일, 이상현, 전인구, 이인자, 김대중, 백원기, 이근후, 오희창, 김주본, 연기영, 임원숙, 김규범(무순)
- ※참석하시는 스님께서는 장삼에 대가사를 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1대 종정 추대식 봉행위원장 정대